

TV 1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showing program schedules.

현대판 남자 신데렐라 이야기 '오자룡이 간다'

MBC 일일극 19일 첫 방영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가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MBC 새 일일극 '오자룡이 간다'는 청년 백수 오자룡이 재벌 가 출신의 천방지축 아내를 만나 든든한 남편이자 사위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주인공 오자룡은 별 볼 일 없는 취업 준비생이지만 성실하고 녀석 좋은 청년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AT그룹 둘째 딸 나공주와 얽히면서 알콩달콩한 사랑을 키우게 된다. 오자룡 역의 배우 이상우는 12일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자룡은 한 병의 박카스 같은 느낌의 청년"이라며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아픔을 긍정적으로 견뎌려는 친구"라고 설명했다. 오자룡의 아내 나공주는 오연서가 연기한다. 오연서는 최근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알미운 시누이 방발숙 역으로 주목받고 나서 이 작품으로 주연에 올랐다. 오연서는 "주연을 맡게 돼 정말 감사하다"며 "사실 정말 떨린다. 시작하기 전에 부담감이 많았는데 감독과 선배들이 잘 도와줘서 재미있게 잘 찍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공주는 뉴욕 디자인 스텝을 다니며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휴학을 한 찰부치 아가씨다. 공주는 막대한 일을 배우라는 아버지로 자라온 자룡이 일하는 매장에 들어갔다 자룡과 얽히게 된다. 오연서는 "공주는 러블리한 것 같다"며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 귀엽고 발랄하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상대역 이상우는 그의 대학교 선배다. 오연서는 "출연을 고민하던 중에 장우 오빠가 주인공이라 해서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오빠가 많이 챙겨주고 양보도 많이 해주신다"고 상대역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우·오연서·서현진·진태현>

공주의 언니 진주는 드라마 '짜패' '신들의 만찬'에 출연한 서현진이 연기한다. 진주는 이저적인 대화 무용과 교수로, 진용석(진태현 분)과 정략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아내를 잃고 홀로 딸을 키우는 인공(정찬)을 마음에 품고 있다. 서현진은 "평탄하게 자라오다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끝까지 밀어붙여려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반항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연협뉴스

知天命이 되는 오늘 운세

Table with columns for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and horoscope content. Includes date 11월 13일 (월 9월 30일 戌寅).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Includes program times and titles like '2012 학교시험대비', '2012 수능 특강 5분 시험(1)', '청춘의 소망'.

Language learning content for 'Where can I wash my hands?', '下筆成文(하필성문)', and '니하오 풍구위' (你好 风 구위). Includes Korean, English, and Chinese text.